

佛-獨, 4강 길목서 “으르렁~”

프랑스
올리비에 지루

프랑스, 8년만의 8강 진출...독일, 연장 접전끝 알제리 제압

‘전차군단’ 독일과 ‘아트스커’ 프랑스, 두 유럽의 강호가 4강으로 가는 길목에서 격돌한다.

독일은 1일(한국시각) 알제리와의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본선 16강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2-1로 이겼다.

공격수 안드레 쉬틀레(첼시)가 연장 전반에 선제골을 터뜨렸고 메주트 외칠(아스널)이 연장 후반에 쐐기골을 박았다. 알제리는 연장 후반 추가시간에 압델무멘 자부(아프리카인 투니스)가 한 골을 만회했다.

독일은 앞서 열린 16강전에서 나이지리아를 꺾은 프랑스와 오는 5일 리우데자네이루의 마라카낭 경기장에서 준결승 출전권을 두고 맞붙는다.

우승을 노리는 유럽의 강호 독일과 프랑스는 과거 월드컵 본선에서 세 차례 맞붙어 1승1무1패를 기록했다.

독일은 1982년 스페인 대회 4강전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프랑스를 따돌렸고 1986년 멕시코 대회 4강전에서도 프랑스를 2-0으로 이겼다. 프랑스는 1958년 스웨덴 대회 3, 4위전에서 독일을 6-3으로 꺾었다. 역대 맞대결 전적에서 프랑스는 독일에 11승6무8패로 우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독일과 알제리의 16강전은 알제리의 투혼에 독일과 축구 팬들이 깜짝 놀란 한판이었다. 알제리는 강력한 압박으로 전반에 우세한 경기를 펼쳤다. 역습도 날카로워 독일은 여러 차례 식은땀을 쏟았다.

독일은 중거리슛을 주무기로 삼아 공격의 활로를 뚫으려 했지만 알제리 수문장 라이스 엠불히(CSKA소피아)에게 막혔다. 독일은 전반 41분 마리오 괴체(바이에른 뮌헨)가 중거리슛, 리바운드 슛을 잇따라 시도했으나 둘 다 엠불히에게 차단됐다.

알제리는 후반에도 볼 점유율을 포기한 채 수비에 집중해 독일을 곤혹스럽게 했다. 알제리의 날카로운 역습이 간헐적으로 되풀이되는 가운데 독일은 공격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속을 태웠다. 독일은 전반 34분 토마스 뮐러(바이에른 뮌헨)가 오른쪽 크로스를 헤딩슛으로 연결했으나 엠블히는 또 슈퍼세이브를 연출했다.

프랑스는 나이지리아와의 16강전에서 후반 막판 터진 폴 포그바(유벤투스)의 헤딩 결승골과 상대 자책골을 묶어 2-0으로 이겼다. 경기 막판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은 끝에 결국 승리를 거머쥐며 1998년 프랑스 대회 이후 16년 만의 우승을 향한 질주를 이어갔다.

포그바의 결승골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이지리아가 프랑스에 근소하게 우세했다.

전반 19분 나이지리아의 원톱 이매뉴얼 에메니케(페네르바체)가 아메드 무사(CSKA 모스크바)가 왼쪽에서 올려준 낮은 크로스에 발을 갖다 대 골망을 갈랐지만 간발의 차이로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았다. 프랑스도 몰려서지 않았다. 전반 22분 포그바가 마티외 발뷔에나(마르세유)의 낮은 크로스를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오른발 발리 슈팅으로 마무리했다. 그러나 골대 오른쪽 상단으로 강하게 날아간 공은 나이지리아 골키퍼 빈센트 에니에마(릴)의 슈퍼세이브에 막혔다.

디디에 데샹 프랑스 감독은 후반 중반 부진했던 올리비에 지루(아스널)를 빼고 측면과의 연계 플레이가 강점인 앙투안 그리즈만(레알 소시에다드)을 투입했다.

이후 나이지리아 골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던 프랑스는 후반 34분 포그바의 헤딩골이 들어가면서 승리를 예감했다.

왼쪽에서 올라온 코너킥을 에니에마가 편정으로 걷어내려 했지만 제대로 맞지 않았다. 볼은 골 지역 오른쪽으로 넘어갔고 포그바가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기다렸다는 듯 킥을 띄우려 했지만 헤딩 슈팅으로 텅 빈 골대에 꽂았다.

/연합뉴스

독일
메주트 외칠

알제리 첫 16강 진출 ‘새역사’

할릴호지치 감독 홀연히 잠적

협회와 불화·언론과 갈등·계약 만료 등 추측 무성

제축구연맹(FIFA)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였으나 알제리축구협회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AP통신, AFP통신 등 현장 취재에 나선 매체들은 할릴호지치 감독의 기자회견 불참이 불투명한 거취와 무관하지 않다고 관측했다.

계약이 끝난 선수단을 바로 떠났다는 추측도 나왔다. 할릴호지치 감독은 선수단, 협회와의 불화설, 언론과의 갈등과 더불어 이번 대회가 끝나고 사임할 것으로 알려진 사령탑이었다.

할릴호지치 감독은 유고슬라비아의 공격수 출신 지도자로 프랑스,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 크로아티아 등지에서 클럽 감독을 맡았다. 그는 2008~2010년까지 코트디부아르를 맡아 월드컵 예선을 통과했으나 본선을 4개월 앞두고 협회 내부 사정 때문에 경질되는 아픔을 겪었다. 할릴호지치 감독은 2011년 7월 1일부터 계약기간 3년에 알제리 지휘봉을 잡고 아프리카 예선 가시밭길, 본선 조별리그를 돌파했다.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그와 알제리 언론의 좋지 않은 관계가 자주 화제가 되곤 했다. 그는 조별리그를 앞두고 “3년 동안 모두가 피땀을 쏟아 만들어낸 팀을 흔들지 말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할릴호지치 감독은 조별리그에서 선발전 5명을 바꾸는 파격 전략으로 한국을 완파하고 언론에 울분을 토했다. 그는 “언론이 허위보도로 대표팀을 음해하고 감독의 가족까지 비난했지만 알제리 국민은 대표팀을 사랑하고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당시 기자회견장에서는 취재진 대표를 자처한 알제리 기자가 동료의 잘못을 대신 반성한다며 할릴호지치 감독에게 사과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연합뉴스

‘8강행 흥분’ 31명 철창행

〈코스타리카〉

페이스북, 10억건 신기원

월드컵 이모저모

○…알제리축구협회가 2014 브라질월드컵 경기 도중 상대국 골키퍼의 얼굴에 레이저 빔을 쏜 관중 때문에 벌금을 물게 됐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월드컵 경기 도중 관중이 레이저 빔을 사용한 것 등으로 알제리축구협회에 5만 스위스프랑(약 5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지난 30일(현지시각) 밝혔다.

장계 사유에는 알제리 관중이 불꽃과 연기를 일으키는 폭죽 등을 경기장에서 터트린 행위로 포함됐다. FIFA는 “알제리 협회는 자국 관객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알제리는 지난달 26일 열린 러시아와 대회 조별리그 H조 최종전에서 0-1로 끌려가던 후반 15분 프리킥에 이은 이슬람 슬리마니의 헤딩 동점골로 1-1로 비겨 32년 만에 16강 진출을 이뤘다.

하지만 당시 동점골 직전에 러시아 골키퍼 이고리 아킨페예프의 얼굴에 레이저 빔이 어른거리는 장면<사진>이 TV 중계 화면에 포착돼 논란을 불러왔다. 러시아의 카펠로 감독은 실점 때 골키퍼가 레이저 빔에 방해를 받았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사상 최초로 월드컵 8강에 오른 코스타리카 시민들이 흥에 겨운 나머지 무더기로 철창 신세를 졌다.

AFP통신은 코스타리카 축구 대표팀이 2014 브라질월드컵 8강에 오른 지난 30일 이를 기뻐하며 길거리로 나온 시민 중 31명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1일 보도했다. 체포된 시민 대부분은 폭행이나 공공질서 파괴 등의 혐의를 받았다. 코스타리카 경찰은 1990년 이탈리아 대회 이후 24년 만의 16강전을 전후로 20시간에 걸친 특별 경계 근무를 해야 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흥분한 시민들의 교통 위반도 속출해 음주운전자 27명이 교통 경찰에 적발됐다. 이날 하루 동안 코스타리카 경찰은 가정폭력 486건, 공공질서 파괴 602건, 폭행 411건 등의 신고를 받았으며 8강전 경기 때는 책임감 있게 행동해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단일 종목 스포츠 이벤트로는 세계에서 최고 인기를 구가하는 월드컵 축구대회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서 신기원을 열었다. 미국 정보통신 전문 매체인 사넷과 AP 통신은 페이스북의 발표를 인용해 페이스북에서 발생한 2014 브라질월드컵 관련 ‘상호작용’이 10억건을 돌파했다고 30일(현지시각) 전했다. 페이스북은 월드컵 개막일인 12일부터 29일까지 2억 2000만명에 달하는 전 세계 사용자가 월드컵에 대해 올린 글, 이 글에 지인들이 다는 코멘트, ‘좋아요’와 같은 반응을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으로 파악해 일일이 수를 셸다.

페이스북은 단일 스포츠 이벤트에서 상호작용이 10억건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뒀다.

/연합뉴스